



대한인쇄문화협회, 제3회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상담 · 동경도서전 참관 · 일본인쇄산업연합회 방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3회 일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7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7월 2일 동경 유포트 호텔 6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상담회에서 49개의 바이어(업체당 7개)업체와 1:1 상담을 통해 총 1억5000만 엔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또한 7월 3일에는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3도쿄국제도서전'을 참관했으며, 김남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일본인쇄산업연합회를 방문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역대 최대 1억5000만 엔 상담 실적 기록

일본시장개척단 파견은 올해가 3회째로,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인쇄물수출지원센터 인쇄물 수출 진흥 사업의 하나다. 청아문화사, 아시아프린팅, 동일정보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주)드림인쇄, 한국소문사, 새한문화사 등 7개 업체에서 11명의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에 배정된 각 7개 업체와 수출상담을 진행, 역대 최대인 1억5000만 엔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일본은 매해 3000만 달러 이상의 인쇄물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국으로, 2012년도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126만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대한인쇄문화협회가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한류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쇄물에 대한 호감도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2014년엔 동경 이외 지역 변경 검토

시장개척단 사업은 혼자 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인쇄사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진흥하는 사업은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2의 인쇄물 수출국인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다른 산업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시장개척단 파견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3년 동안 시장개척단 활동을 진행한 동경 지역은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2014년에는 동경이 아닌 오사카 등으로 파견 지역을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일본시장 현황과 기업문화 등에 대한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인쇄문화협회는 국내 참여업체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 상담 업체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2013도쿄국제도서전에 4개 인쇄업체가 참가해 인쇄물 수출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인쇄센터, 4개 업체 모집해 도서전 참가

일본시장개척단은 7월 3일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2013도쿄국제도서전' 도 참관했다. '2013도쿄국제도서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참가업체를 모집해 주제국 자격으로 국내도서 수출 증대 및 출판 산업 외수시장 개척을 통한 국내 출판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참가했다. 도쿄국제도서전은 매년 40여 개국이 참가하고 6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일본 최대의 도서전이다. 세계 제2의 출판시장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만큼 출판사는 물론이고 인쇄사, 서점 및 유통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도서전 기간 동안에는 '도쿄 e-북 엑스포'가 동시에 개최돼, 아시아 출판 업계는 물론이고 e-북 콘텐츠 업계의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7개 출판사를 포함하는 250㎡ 규모의 한국관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펼쳐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도 해외수출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서울시 해외전시회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청아문화사, (주)타라티피에스, 팩컴코리아, 해인기획 등 4개 업체와 함께 60㎡ 규모의 부스로 참가해, 우리나라 인쇄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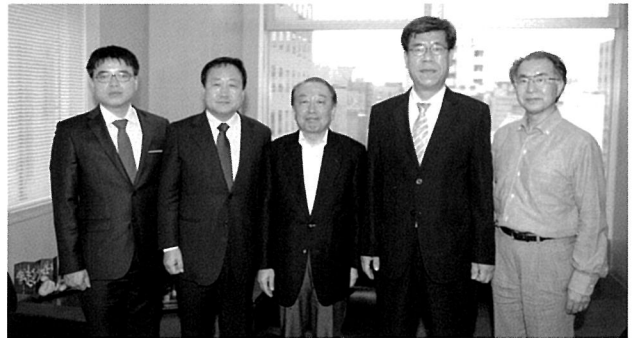
2013년 말 양 단체 교류협정 추진

7월 3일 오후 4시 30분에는 김남수 회장을 포함한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표단이 일본 인쇄산업연합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인쇄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양국 단체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식 미팅은 일본인쇄산업연합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팅에서 일본인쇄연합회는 설립년도부터 회원사 현황과 주요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했으며, 일본 인쇄산업 현황과 시장분석에 대한 밀도 있는 브리핑을 전달했다.

우리나라 대표단도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설립년도부터 이어온 주요 활동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으며, 우리나라 인쇄산업 현황과 각 분야별 시장 상황에 대해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브리핑을 전개했다.

한편, 양 단체는 양국의 인쇄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2013년 말까지 일본인쇄산업연합회가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해 양 단체의 교류협정을 정식으로 체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 간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양국의 인쇄시장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인협 대표단이 일본인쇄산업연합회를 방문해 양국 교류협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업체



1. 동일정보인쇄(대표 이순석) 수출상담 모습
2. (주)드림인쇄(대표이사 박수용) 수출상담 모습
3. 새한문화사(대표 윤문상) 수출상담 모습
4. 아시아프린팅(대표 이국홍) 수출상담 모습
5.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 수출상담 모습
6. (주)타라티피에스(대표이사 이재수) 수출상담 모습
7. 한국소문사(대표 박성구) 수출상담 모습